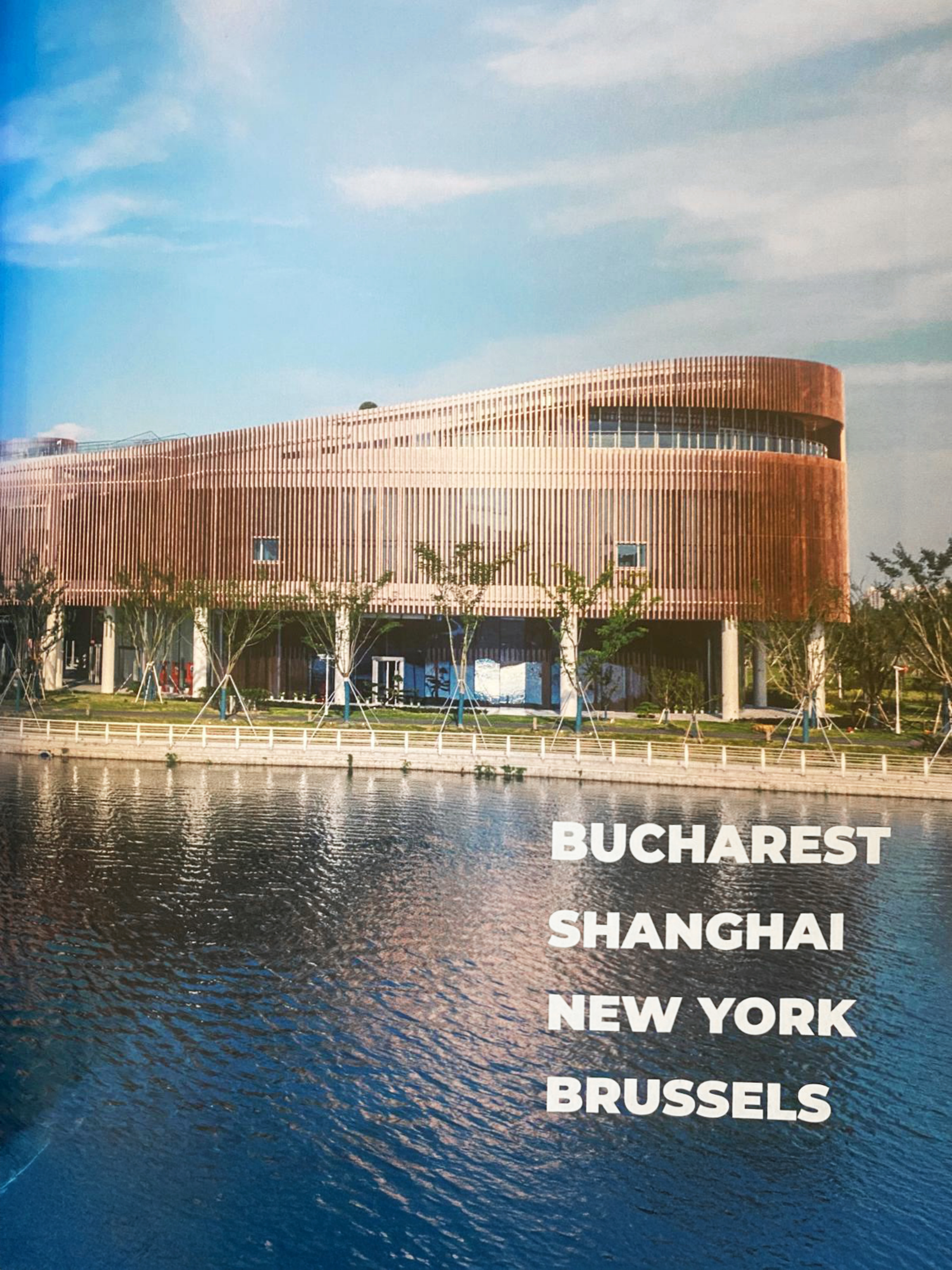


ART WORLD





BUCHAREST
SHANGHAI
NEW YORK
BRUSSELS



아방가르드와 다다적 정신이 빚어낸 저항적 서정성 《콘스탄틴 앙카 개인전》

부쿠레슈티 국립도서관 2025. 9. 23 - 10. 16

동유럽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도심에서 출생한 앙카(Constantin Anca, 1959~)는 이번에 모국이자 고향인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에서 약 3주간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2만 km나 떨어진 그 전시장을 왕복 비행기로 방문하였다. 국립도서관 1층 로비 오른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이 좌우 양쪽에서는 자연 채광을 활용하고, 중앙부는 약간 어두운 통로 형식을 가진 전체적으로는 50평 남짓한 직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시 포스터의 표어가 루마니아어로 “책-오브제와 회화(Carte-obiect si pictura)”라고 적혀 있듯이, 이번 전시는 과거 다른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품들과 최근의 신작들을 한 데 모아 구성한 것이었다. 작품의 주된 경향은 표현 형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책-오브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회화작품’으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전시 공간에서 전자는 양쪽 정사각형 공간의 중앙에 각각 1점씩 진열되어 있었고, 후자는 이 두 공간의 벽면과 중앙 통로 하부의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이 두 유형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감지되는 전반적인 앙카의 화풍은 문학적 서정성을 지향하면서, 일부에서는 해학미를 가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회화 속으로 문학의 특성을 끌어들여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플라톤이 말한 해학미를 단순한 철학 개념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상과 장면 구성 속

상. 《실내-실외 I-III》, Oil, Gold Leaf and Metal on Canvas, 각각 100×50cm, 1996
하. 콘스탄틴 앙카



에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그녀가 지향하는 서정적 문학성은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의 유명한 명제 “우투 픽투라 포에시스(Ut pictura poesis)”, 곧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pictura loquens), 그림은 말 없는 시다(poema silens)”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시와 회화가 감상자의 위치, 거리,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드러낸다는 수용적 유비처럼, 그녀의 작품 역시 연상법을 통하여 우리가 상실해 온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법 면에서 그녀의 작업은 전통 회화에서부터 콜라주(collage)와 오브제, 콤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작품에서는 정치적 함의를 심미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2009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개인전을 소개한 『르탕(Le Temps)』誌의 2009년 2월 3일 기사에서는 “일부 작품에서 사용된 붉은색과 푸른색은 스위스 국민당의 정치 캠페인에 등장하는 까마귀를 상징하며, 이는 그녀가 해학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어린 시절 경험한 독재 정권의 말살 정책으로 인한 문화 파괴가 이후 그녀 예술세계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주제이자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양카의 2000년 작품 〈사포의 다른 초상들(The Other Portraits of Sappho)〉은 콤바인 페인팅을 사용하여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과 나무 오브제(화면 중앙 오른쪽의 이오니아식 신전 기둥), 텍스타일 등을 결합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파괴된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향수를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정서는 일반적으로 서양, 특히 유럽인들에게 ‘정신적 고향’으로서 그리스 문화를 지향하는 감수성과 연결되지만, 양카에게는 더욱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억과 맞닿아 있다. 그녀가 청년기까지 직접 목격했던 공산 체제하에서 역사, 예술, 문화의 파괴는 깊은 상처로 남았고, 이러한 경험이 훗날 그녀의 예술적 실천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레스보스섬 출신의 사포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여류 서정시인이었다. 양카는 지중해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바탕으로 사포가 자신의 시에서 노래한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고대 그리스 풍경의 사물들, 신전 건축의 문양 등을 선적(線的) 표현으로 풀어냈다.

〈카산드라(Kassandra)〉(2020) 시리즈의 주인공 카산드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로, 왕 프리아무스(Priamus)와 왕비 헤쿠바(Hekuba)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아폴론은 그녀에게 매료되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부여했으나, 그녀가 그의 사랑을 거부하자 누구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게 되는 저주를 내렸다.

상부 그림에서는 붉은 실루엣의 여성이 어둠 속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을 뻗어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예언자 카산드라의 절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부 그림은 불길과 폭발을 떠올리게 하는 붉고 노란 색채 덩어리들이 뒤엉켜 붕괴하는 세계, 즉 다가오는 파국을 추상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상부 그림은 “예언하는 카산드라”를, 하부 그림은 “그 예언이 현실로 드러난 재앙”을 의미하며, 두 장면은 합쳐져 카산드라의 비극적 서사를 완성한다.

콤바인 페인팅인 〈부쿠레슈티 실내(Bucharetsean interior)〉(2025)를 보자. 루마니아



〈카산드라〉, Acrylic and Oil on Canvas, 2개 삼각형, 각각 100×150cm, 2020



좌. 〈사포의 다른 초상들〉, Oil, Wood, Textile on Canvas, 100×100cm, 2000

우. 〈부쿠레슈티 실내〉, Acrylic and Metal on Canvas, 100×100cm, 2025

하. 〈파슬리나-불순한 천사〉, Book-objet, Acrylic and Metal on Paper, 30×21cm, 2003

정교회 신도들의 가정에는 대개 '아이콘-천사(Icon-angel)'라 불리는 성모 마리아 부조상이 수호신으로 모셔져 있다. 양카는 이 작품에서 화면의 왼쪽 상단에 성모 마리아의 도금한 부조상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부쿠레슈티 가정의 실내를 마치 스케치하듯이 간략한 선묘와 금빛 색채로 채색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작품 역시 문학의 비유적인 표현과 연상법을 활용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콤파인 페인팅은 사실상 그녀가 결혼 후 스위스에 정착한 뒤, 1996년부터 시도한 초기 유형에 속한다. 〈실내-실외 I-III(Interior-Exterior I-III)〉(1996) 시리즈는 유화로 그린 공간 위에 실제 오브제를 부착하거나 그 위에 금박을 덧입힌 3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금박을 입히는 기법은 역사적으로 비잔틴 시대와 동방 정교회의 아이콘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양카는 왼쪽부터 배치된 세 폭의 화면이 구상과 추상의 이미지를 통하여 여성들의 일상에서 비롯된 구체적 요소들 사이의 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오른쪽 두 폭에서는 다양한 뉘앙스를 띤 금박들 사이의 대화가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이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된 실내 공간 속에서의 인간 부재를 암시한다고 말한다. 양카가 작품에 금박을 사용하는 방식은 황금빛으로 뒤덮인 비잔틴 미술과 그 성화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미술사를 환기하는 양카의 또 다른 작업 유형이 바로 '책-오브제' 속에 있다. 양카는 검은 책, 푸른 책, 초록 책 등 서로 다른 표지 색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중세의 귀중한 서적처럼 느끼도록 유



도한다. 동시에 조형 작품으로서의 책은 문자와 이미지 사이의 다양한 참조 관계를 통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일종의 신비감도 체험하게 한다. 특히 이 책들은 표지 색상만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질감과 의미가 퇴적된 층위를 함께 드러낸다는 점에서 양카 특유의 의미 부여 방식이 두드러진다.

양카는 이러한 책-오브제 유형의 작품들을 2개의 대형 투명 유리 장식장 속에 넣어 전시 공간 양쪽의 중앙에 설치하였다. 그중 1점은 20세기 초 그리스의 저명한 시인 카바피스(Constantine P. Cavafy, 1863~1933)를 다룬 작품이고,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또 1점이 바로 <파솔리니-불순한 천사(Pasolini-The Impure Angel)>(2003)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파솔리니(Pier Paolo Pasolini, 1922~75)는 이탈리아 출신 시인이자 영화감독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가톨릭 지식인이며 동시에 동성애자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파솔리니의 이중적 정체성을 책의 표지와 이미지, 그리고 문학적 텍스트 전반에 압축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중앙 지점 벽면에는 <기억(Memory)>을 비롯한 여러 판화와 드로잉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이 작품은 회색 배경의 판화 화면 상부에 부분적으로 파괴된 33회 전 레코드판(소위 '얼어붙은 음악')을 박물관 유물처럼 끼워 넣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양카는 19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와 소재는 대체로 서양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동양적 주제와 소재는 2022년에 선보인 작품군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무렵 그녀는 일본 에도 시대(1760~1849)의 화가이자 목판화가인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 1760~1849)의 예술에 매료되었다. 양카의 <정화 중인 대양(Ocean under Purification)>(2023) 시리즈는 이러한 호쿠사이에 대한 깊은 공감과 흡수의 결과로 탄생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양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호쿠사이가 그려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의 이미지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녀의 화면에 등장하는 요동치는 파도는 호쿠사이의 바다와 닮은 듯하면서도 환경 오염으로 황폐해진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다. 두 작가 모두 진한 푸른색을 바다의 기본색으로 사용하지만, 양카는 그 위에 검은색을 덧입혀 오염을 암시하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환경 파괴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관람자의 환경 의식을 환기하고자 한다.

독일인 젤과 결혼하여 스위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예술 활동을 펼쳐 온 양카는 본래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자란 화가이다. 그녀의 저항적이고 반어적인 예술 이념은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이 자행한 사회 전반의 말살 정책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녀가 스위스를 중심 무대로 활동하면서, 당시 그 지역을 대표하던 저항적, 반어적 예술 이념인 아방가르드 미술, 특히 다다이즘과 조우하게 된 사실은 그녀의 예술세계가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만남은 양카에게 다양한 실험적 예술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험적 예술 정신이 동양의 예술 문화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그녀만의 독자적인 예술세계가 한층 더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상. <기억>, Etching, Mixed media, Chin-collé, Metal, 60×50cm, 2002

하. <정화 중인 대양>, Acrylic and Oil on Canvas, 150×150cm, 2023

ARTWORLD

12 | 미술세계
2025 December Vol. 14



COVER ARTIST | 신상호
SPECIAL ARTIST | 정현
ZOOM IN ARTIST | 김미란·양경식
SPECIAL FEATURE | 창작미협 70년
TOPIC | 레코드 커버 위의 예술
ATELIER ARTIST | 김창완



**Romanian Cultural Center - New York
East - West Gallery, 573-577 3rd Avenue**

ANCA SEEL - "Artrise"

Mixed media and installations

Born in Romania, resident in Neuchatel-Switzerland, graduated from the Academy of Arts in Bucharest, Anca Seel received grants from the Swiss Studio "Le Corbusier" in Paris (1994-95) and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in Paris 1995-98. Her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many galleries in Europe, USA, and Japan. She is mostly acclaimed for her "books-art-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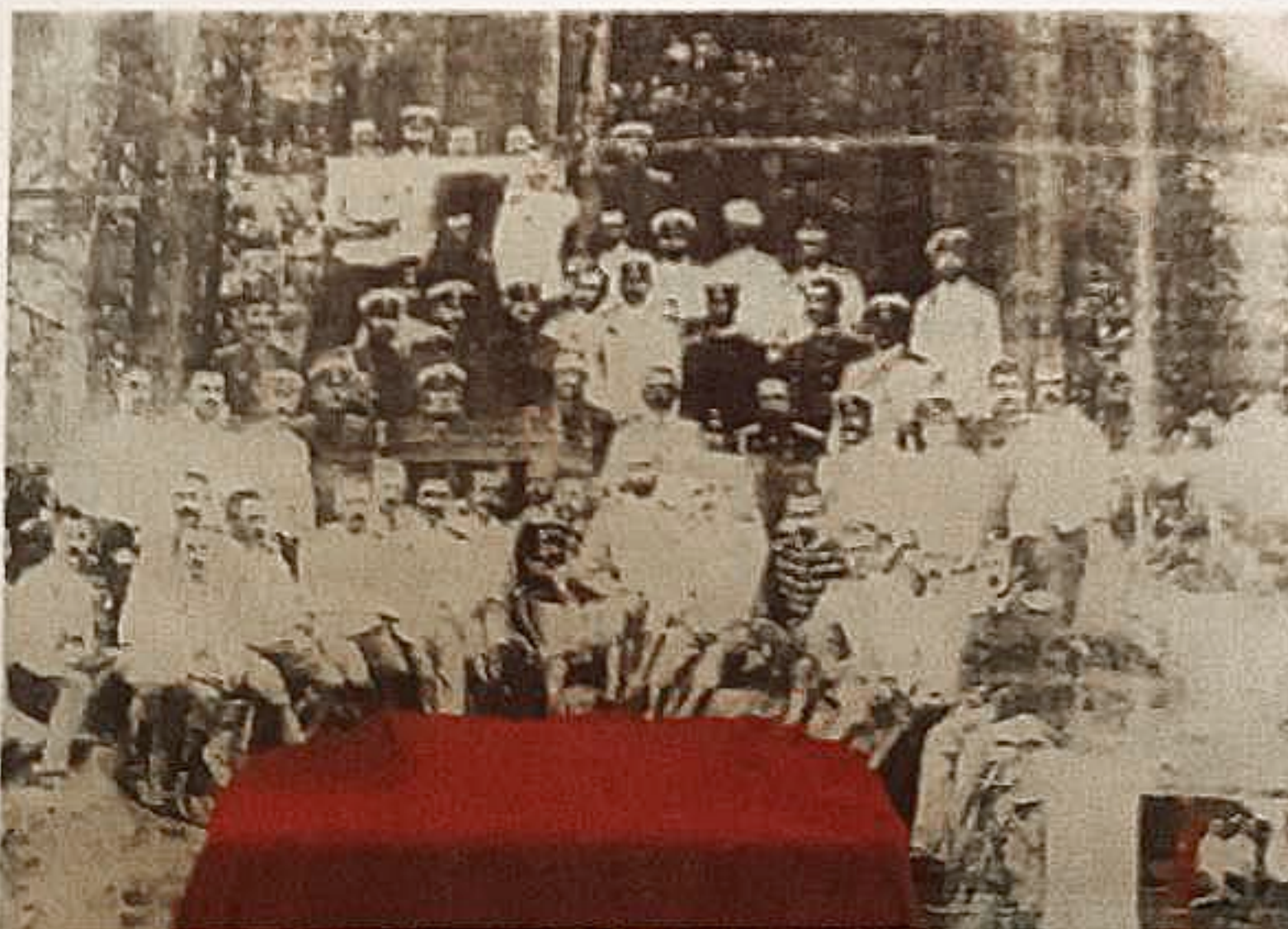
The imagination of Anca Seel erupts with happiness, revealed by her exuberant art as having escaped the world of the Rumanian dictatorship of the 80s, which she has confronted and repulsed with the courage and dignity of a true combatant.

Her spontaneous dissidence, bereft of all trace of rancor towards the professional torturers, is like a sun infusing the mind of the paradoxical light of a vibrant melancholy for the world she has left.

Her centrifugal inspiration rearranges along spiral courses, through the various techniques of drawing, engraving, painting, photography, sketchbook or installation, the pieces of a puzzle that reconstitutes with aristocratic distance the picturesque Romanian world whose essences could not be suppressed by the most oppressive communist regime of eastern Europe.

A courtly splendor ringing with the sound of the ancient gold that for centuries permeated the Byzantine Empire ennobles the images recovered from yellowing photograph albums of the patriarchal and prosperous Romania of the first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Old images "corrected" by the freshness of paint, in a style that recalls the neo realist intonations of Le Gacq, Rancillac or Grigorescu Ion. Through its beauty, her work takes its revenge before the drama of history, now distilled into the essences of the aesthetic.

Coriolan Babeti



On view : April 9 - May 20

Une princesse venue d'Orient, avec dans ses bagages des images d'un monde finissant, massacré, des souvenirs pathétiques de fêtes; la nostalgie mais en même temps l'ardeur, l'imagination, la folie, la magie: d'origine roumaine, Anca Seel a étudié à l'Institut des Beaux-Arts Nicolae Grigorescu de Bucarest, où elle a commencé à exposer en 1988. En 1992 elle se rend pour la première fois en Occident, en Allemagne et en Hollande, puis vient s'établir en Suisse, à Neuchâtel, où elle fait sa première exposition en 1994. P. von Allmen, qui l'avait déjà exposée dans son musée de Thielle, la choisit pour le Grand-Cachot-de-Vent à La Chaux-du-Milieu.

Pour citer Martine Lavanchy, directrice de la Galerie des Amis des Arts de Neuchâtel qui l'a accueillie l'an dernier: «Avec Anca Seel c'est l'exubérance et le baroque qui vous assaillent; la fascination d'un monde disparu et toujours cher au cœur de l'artiste. Par le chatoiement des teintes, les éclats de poussières d'or ou l'adjonction de brisures de miroirs, Anca Seel nous restitue toute une parcelle d'atmosphère byzantine. L'intégration de morceaux d'anciennes photographies, de découpages d'imprimés ou d'objets insolites compose ainsi de mystérieux symboles qui résonnent de manière mélancolique ou dramatique, prémonitoire parfois.»

Anca Seel présente au Grand-Cachot-de-Vent une impressionnante série de gravures, un art qu'elle maîtrise de manière virile, en intégrant volontiers, au besoin, des morceaux de métal. On retrouvera aussi son évocation d'un passé rêvé, avec par exemple ce traitement de vieilles photographies:



La nostalgie du portrait, 1994, technique mixte

en 1901, voici le tsar et des officiers de son armée blanche - de jeunes hommes tous fusillés seize ans plus tard, à l'exception de deux rescapés, réfugiés en Roumanie, dont l'un était le père de l'oncle de l'artiste.

Mais Anca Seel ne se berce pas seulement de l'évocation de ces vies naufragées. Elle évolue vers de nouveaux horizons, elle tend vers un non-figuratif où éclatent la sensualité de couleurs et de formes venant du tréfonds de son être. Et puis elle se lance dans une série érotique, traitant de ce domaine troublé avec fraîcheur poétique et humour, donnant des titres tels que: *La stagione d'amore*, *Così fan tutte*, *Una aura amorosa*, *La fête occulte*, *La chambre balkanique*, *Mystique magique*, *Les plaisirs du callophile*!

Elle ne voit pas de rupture entre ses différentes recherches, qui sont toutes menées par un désir violent, par un constant jeu avec les matières, papiers, métal, avec les couleurs. A l'image de la vie même, Anca Seel aime détruire pour reconstruire, se détruire elle-même pour renaître de ces cendres.

Anka Seel, ou le romantisme marqué au fer rouge de l'histoire

Chaque rencontre avec Anka Seel est une bouffée d'exubérance dans une société trop souvent étreinte par ses carcans. L'artiste roumaine, installée à Neuchâtel depuis 1989, incarne le romantisme absolu, au sens profond du terme. Tout comme sa vie, son œuvre est marquée au fer rouge de l'histoire de son pays natal. Portrait d'une femme hors normes, révolutionnaire, peintre et férue de littérature, qui a exposé de New-York à Paris, en passant bien évidemment par Bucarest.



L'histoire d'Anka Seel pourrait être tout droit sortie d'un conte de fée. C'est d'ailleurs ainsi qu'elle l'avait rêvée.

En 1985, alors que la Roumanie est sous le joug du dictateur, dont elle se refuse de citer le nom et qu'elle considérait comme un ennemi personnel, Anka Seel étudie à la faculté des beaux-arts de Bucarest. Sa vie bascule avec la visite d'une commission universitaire suisse composée de trois personnes, venues établir des contacts avec les étudiants roumains. Parmi eux, Gehrard Seel, philosophe. « J'ai immédiatement entendu une musique quand j'ai vu ses yeux », déclare, encore aujourd'hui émue, l'artiste, « il m'a écrit clandestinement à l'adresse de l'université pendant deux ans et finalement je lui ai donné mes coordonnées et mon numéro de téléphone. »

A l'époque, Anka était sous surveillance, suivie en permanence et sous écoute pour avoir manifesté contre la destruction des églises. En 1987 Gehrard revient en Roumanie mais le couple doit patienter une année avant de pouvoir se marier, après avoir dû passer devant un tribunal populaire. Leur union est célébrée à Bucarest et les Seel s'envolent vers la Suisse.

La Suisse, un îlot merveilleux

« J'ai toujours rêvé qu'on m'enlève en troïka (ndlr: grand traîneau tiré par trois chevaux), là c'était en avion, mais c'était parfait aussi », glisse la grande romantique.

De son arrivée sur le territoire helvétique, Anka est marquée par le sourire du doux

natale et par un magasin très coloré de fruits et légumes. C'était le 8 janvier 1989.

Aujourd'hui, Anka Seel est naturalisée suisse. Seul le doux roulement de ses « r » et un grain de folie peuvent la distinguer de ses compatriotes. « Je pense que j'aime plus la Suisse que certains Suisses. J'aime l'idée de neutralité, d'un îlot où tout est merveilleux. Beaucoup d'artistes ont par ailleurs trouvé refuge ici. » Une terre sur laquelle Anka ne s'est jamais sentie exclue, avouant, néanmoins, avoir souffert de l'idée que certains se faisaient de la Roumanie. « Les gens pensaient que la Roumanie était un pays sans culture, barbare, alors qu'il y a des universités et des écoles de beaux-arts dans la plupart des villes. »

La peinture plutôt que les gammes

En parlant d'art, Anka ne se souvient pas vraiment quand elle a commencé à peindre. « Je ne sais pas comment je suis venue à la peinture, j'ai l'impression de l'avoir toujours fait. Alors que je devais exercer mes gammes au piano, je peignais. Au grand dam de mes parents, médecins, qui souhaitaient que je suive le même chemin qu'eux. »

L'artiste s'essaye à de nombreuses disciplines au cours de ses études et notamment à la tapisserie et à la création de costumes de théâtre, pour lesquels elle obtiendra un prix national. Aujourd'hui, son œuvre se construit essentiellement autour de la

vieilles photographies. Elle use sans limite de teintes, chatoyantes, éclatantes, comme le rouge omniprésent dans ses dernières toiles. « Ma prochaine exposition sera exclusivement en rouge et noir, mais rien à voir avec Stendhal », lance, enjouée cette passionnée de littérature, qui a déjà réalisé de nombreux ouvrages pour les bibliophiles, dont un avec Agota Krist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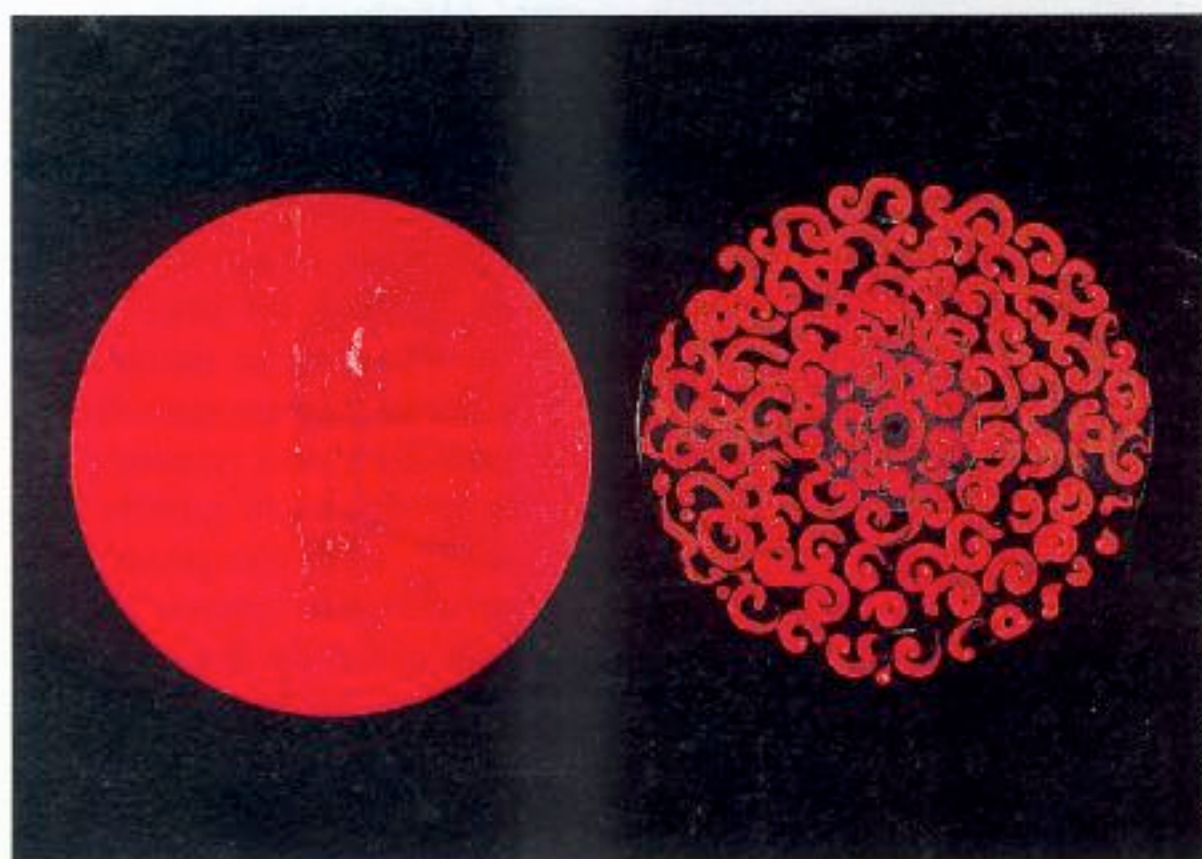
Plaire et non provoquer

Ses tableaux captent le regard par leur lumière, leur profondeur, peut-être parce qu'au-delà de la couleur, chacune de ses peintures recèle une partie de l'histoire de sa famille, de son pays. De l'émotion à l'état pur. Et malgré son exubérance si fraîche et naturelle, Anka Seel dit n'avoir jamais voulu provoquer. « Il est plus difficile de faire quelque chose qui plaît plutôt que quelque chose qui dérange. Je regrette que dans l'art il faille aujourd'hui absolument provoquer, offusquer. »

A la fin de l'année dernière, elle a été la première artiste suisse à avoir été invitée, durant six semaines, au Château de la Napoule, près de Cannes. Une demeure qui a notamment reçu des prix Nobel et de nombreux artistes renommés. La prochaine étape sera très certainement une exposition à Bucarest, en février.

Et si l'artiste avoue ne pas savoir exactement combien d'œuvres elle a réalisées – plusieurs centaines – elle dit connaître le nombre qu'elle doit encore créer pour

Au Grand-Cachot-de-Vent: magie, érotisme d'Anca Seel



Objet interdit, 1996, technique mixte

Une princesse venue d'Orient, avec dans ses bagages des images d'un monde finissant, massacré, des souvenirs pathétiques de fêtes; la nostalgie mais en même temps l'ardeur, l'imagination, la folie, la magie: d'origine roumaine, Anca Seel a étudié à l'Institut des Beaux-Arts Nicolae Grigorescu de Bucarest, où elle a commencé à exposer en 1988. En 1992 elle se rend pour la première fois en Occident, en Allemagne et en Hollande, puis vient s'établir en Suisse, à Neuchâtel, où elle fait sa première exposition en 1994. P. von Allmen, qui l'avait déjà exposée dans son musée de Thielle, la choisit pour le Grand-Cachot-de-Vent à La Chaux-du-Milieu.

Pour citer Martine Lavanchy, directrice de la Galerie des Amis des Arts de Neuchâtel qui l'a accueillie l'an dernier: «Avec Anca Seel c'est l'exubérance et le baroque qui vous assaillent; la fascination d'un monde disparu et toujours cher au cœur de l'artiste. Par le chatoiement des teintes, les éclats de poussières d'or ou l'adjonction de brisures de miroirs, Anca Seel nous restitue toute une parcelle d'atmosphère byzantine. L'intégration de morceaux d'anciennes photographies, de découpages d'imprimés ou d'objets insolites compose ainsi de mystérieux symboles qui résonnent de manière mélancolique ou dramatique, prémonitoire parfois.»

Anca Seel présente au Grand-Cachot-de-Vent une impressionnante série de gravures, un art qu'elle maîtrise de manière virile, en intégrant volontiers, au besoin, des morceaux de métal. On retrouvera aussi son évocation d'un passé rêvé, avec par exemple ce traitement de vieilles photographies:



La nostalgie du portrait, 1994, technique mixte

en 1901, voici le tsar et des officiers de son armée blanche - de jeunes hommes tous fusillés seize ans plus tard, à l'exception de deux rescapés, réfugiés en Roumanie, dont l'un était le père de l'oncle de l'artiste.

Mais Anca Seel ne se berce pas seulement de l'évocation de ces vies naufragées. Elle évolue vers de nouveaux horizons, elle tend vers un non-figuratif où éclatent la sensualité de couleurs et de formes venant du tréfonds de son être. Et puis elle se lance dans une série érotique, traitant de ce domaine troublé avec fraîcheur poétique et humour, donnant des titres tels que: *La stagione d'amore*, *Così fan tutte*, *Una aura amorosa*, *La fête occulte*, *La chambre balkanique*, *Mystique magique*, *Les plaisirs du callophile*!

Elle ne voit pas de rupture entre ses différentes recherches, qui sont toutes menées par un désir violent, par un constant jeu avec les matières, papiers, métal, avec les couleurs. A l'image de la vie même, Anca Seel aime détruire pour reconstruire, se détruire elle-même pour renaître de ces cendres.

Anca Seel : un puissant message pictural

Tableaux-mémoires du passé-présent

Beaucoup de bien dans son passé imaginaire. Mais ici, la nostalgie se colore des lumières de l'Orient. Roumano-Macédonienne, des allures de tragédienne grecque qui ajoutent à sa séduction naturelle, Anca Seel se pose en gardienne passionnée de la tradition. Une tradition de haute et vieille civilisation, que ce caractère bien trempé défendrait, on le sent, bec et ongles en cas de nécessité.

Aujourd'hui, à Thielle, Anca Seel illustre son «passé imaginaire», ainsi qu'elle intitule plusieurs de ses œuvres, mais qui est néanmoins bien son passé personnel, au moyen de pinceaux et de peinture – lorsqu'elle ne trempe par directement les doigts dans la matière picturale –, de collages d'objets, de manipulations de photographies. Cela débouche sur des images éblouissantes, répondant aux noms magiques de «Jardins d'Est», de «Chambre balkanique» ou autre «Mandragore».

La peinture d'Anca Seel, c'est Byzance! Voilà la première idée qui vient à l'esprit au regard des tableaux accrochés au Closel Bourbon, alors que les yeux clignent à la découverte des ors, des arabesques et autres grilages de demeures mythiques d'une époque révolue, sur fond de couleurs éclatantes comme le soleil de cette région encore en

Occident, mais déjà en Orient, chère au cœur de l'artiste. «Bucarest est recouvert de la même poussière que le Bosphore et baigne dans la même atmosphère, mais Bucarest n'existe plus», commente-t-elle, rêvant de montrer le passé et les événements dramatiques qui ont bouleversé tant de vies.

Déracinée comme Ionesco, à qui elle voue une admiration chaleureuse, Anca Seel réalise des tableaux-mémoires. Non seulement mémoires de la Roumanie moderne, splendeurs et tragédies confondues, mais également de la Roumanie de l'Antiquité, des Daces aux Romains, en passant par les Ottomans, avant de terminer dans le sang des Ceausescu. Cette dernière étape figure de manière tout à fait prémonitoire dans une modeste œuvre précédant d'un an les dramatiques événements de 1989: deux chaises vides au premier plan, des traces rouges, un sapin. C'est l'exécution de Noël '89, dont le monde entier a pu voir les images télévisées.

Dans ses Jardins d'Est, Anca Seel remémore la ville de Bucarest où il faisait bon vivre. Autre discours, autres moyens. Feuille d'or, chatoyance des couleurs, ondolement des formes. C'est le jardin des délices raconté par ses grands-parents à une jeune Alice au pays des merveilles, Anca Seel enfant, dans une capitale où tout s'écroulait par une volonté politique démente.

Ici, l'artiste intègre toutes sortes de symboles, de souvenirs, sous forme d'objets, de



Anca Seel.

«Objet interdit», huile sur toile. 100 x 100 cm, 1994. (sp)

morceaux d'affiches publicitaires pour un train de légende, l'Orient Express, menant ses passagers vers une destination exotique poudrée de rêves et d'ors. De vieilles photographies de l'époque du dernier tsar apportent à certains tableaux une note tchèque tout em-

preinte de nostalgie. Un moyen, pour Anca Seel d'interroger le passé, de l'intégrer au présent, en prenant la mesure du siècle et de ses chamboulements pour, finalement, tenter de trouver sa place propre, à elle dépositaire tant de l'Orient que de l'Occident.

Ainsi, la jeune femme fait-elle œuvre de synthèse remarquable en utilisant la représentation plastique pour transmettre, au-delà d'une seule esthétique, un message fort, sous-tendu d'émotions qui ne le sont pas moins.

Une série de mystérieuses Chambres balkaniques font appel à la même démarche, à la même quête de racines et donnent l'occasion de retrouver la jeune fille bien éduquée, construisant sa personnalité dans son univers, sa chambre, dans la maison familiale de Bucarest.

Née en Roumanie, Anca Seel vit à Neuchâtel depuis quelques années. Elle est membre de la Société des peintres, sculpteurs et architectes suisses, section neuchâteloise. Diplômée de l'Académie des beaux-arts de Bucarest, elle a effectué ce début d'année un séjour de quatre mois à Paris, dans l'atelier d'artiste du canton. Si elle vit dans un passé où le poids de l'histoire est sans doute plus lourd qu'ailleurs, Anca Seel est bien ancrée dans le présent. Au nombre de ses projets les plus chers: une grandiose installation sur la base d'une ancienne photographie russe de 1901, presque une obsession pour elle, qui lui permettrait de dresser une véritable fresque de l'Europe de l'Est, cette étrange partie du monde à la charnière de l'Asie et de l'Europe, de plusieurs religions et cultures, que l'Occident cartésien peine tant à intégrer et à comprendre.

Sonia GRAF
● Thielle-Wavre, Musée Pierre von Allmen, jusqu'au 27 août.

Anca Seel Une installation de parapluies rouges pour saluer la femme



Un touchant portrait et une allégorie signés Devéria et Zuberbühler.



photos MAH

Comme la majorité des femmes, «tant de bons tableaux sont restés dans l'anonymat», constate Anca Seel, entre admiration et nostalgie. C'est ce qui justifie son choix de deux images féminines du XIXe siècle, pour dire la femme: une œuvre due à Eugène Devéria, peinte en 1857 et une autre à Fritz Zuberbühler représentant une muse de la poésie et réalisée au milieu du siècle passé également. Deux petits tableaux bien léchés, deux figures du passé, dont le nom s'est perdu.

Deux femmes qui pourraient être nos aïeules, «ma grand-mère», dit Anca Seel, qui source volontiers son travail pictural à de vieilles photographies.

«La femme inspiratrice des arts m'attire pour son affect, pour son mystère, pour sa force», souligne-t-elle en rappelant au passage «la dure existence de femmes ayant la lourde responsabilité d'éduquer dix ou douze enfants, mais sans pour autant ignorer la douceur».

Pour Anca Seel, l'envie de rendre hommage à la femme

passé aussi par l'émotion ressentie face au portrait, «dont la beauté est toujours véhiculée par des femmes». En outre, confie-t-elle, «traînant un complexe oriental, «dostoïevskien», l'anonymat de ces femmes me convient très bien: je n'aurais en effet pas osé toucher à un grand maître, comme Corot par exemple, pour m'y référer.»

Lorsque Anca Seel déclare lire bien plus que peindre — la scénographie ne lui est pas étrangère —, elle souligne on ne peut mieux le lien entre son œuvre picturale et la littérature. Une littérature qui la nourrit comme le murmure d'un long fleuve ininterrompu, ou comme des torrents et des cascades vifs-argents lorsqu'il s'agit de brefs haïkus japonais, dont l'impact visuel est très prégnant. Les deux portraits choisis s'inscrivent tout naturellement dans cette logique.

Un raisonnement qui l'a conduite à réaliser une installation rouge passion, constituée de sept parapluies déployant leurs corolles sur divers maté-

rieux renvoyant à l'univers féminin, d'un croissant de lune rouge, d'un petit tableau qui se veut haïku en image, et d'une peinture en forme de peau de tigre. Dialogue entre signifié et signifiant bien plus que discours sur la féminité, cet univers instaure une narration universelle basée sur quelques objets et symboles clés, sans lien apparent entre eux, si ce n'est une recherche d'effet et, bien sûr, d'une image de la femme. «Que j'ai renoncé à interpréter plus clairement au moyen de sept éventails, parce qu'il faut lui préserver sa part de mystère».

Sonia Graf

Bref parcours

En Suisse depuis 1989, Anca Seel vit et travaille à Neuchâtel, après avoir étudié aux Beaux-Arts de Bucarest. Plusieurs expositions dans la région, mais aussi à Paris, Venise ou New York, ont permis de découvrir son art très personnel, ancré dans les ors byzantins, les vieilles photographies et une passion d'estampes japonaises. Pratiquant la peinture depuis l'enfance, Anca Seel a réalisé de nombreuses gravures ces dernières années, ainsi que des livres illustrés par des estampes originales. En préparation, un ouvrage avec Agota Kristof signera avec éclat le mariage de la littérature et de l'image. / sog



dira la femme: naranhies symboliques et

ininterrompu, ou comme des torrents et des cascades vifs-argents lorsqu'il s'agit de brefs haïkus japonais, dont l'impact visuel est très prégnant. Les deux portraits choisis s'inscrivent tout naturellement dans cette logique.

Un raisonnement qui l'a conduite à réaliser une installation rouge passion, constituée de sept parapluies déployant leur corolle sur divers matériaux symboliques et mystérieux renvoyant à l'univers féminin, d'un croissant de lune rouge, d'un petit tableau qui se veut haïku en image, et d'une peinture en forme de peau de tigre. Dialogue entre signifié et signifiant bien plus que discours sur la féminité, cet univers instaure une narration universelle basée sur quelques objets et symboles clés, sans lien apparent entre eux, si ce n'est une recherche d'effet et, bien sûr, d'une image de la femme. « *Que j'ai renoncé à interpréter plus clairement au moyen de sept éventails, parce qu'il faut lui préserver sa part de mystère* ».

Anca Seel

Così fan tutte,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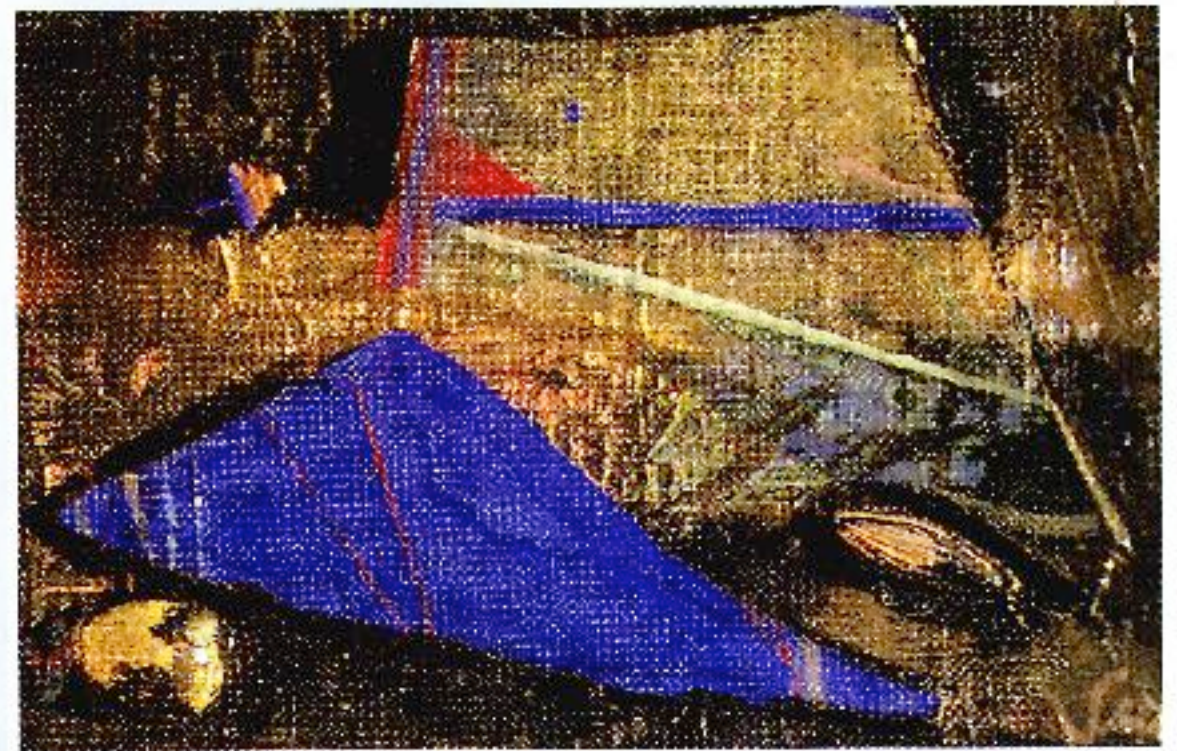
Installation composée de 7 parapluies, de 2 peintures à l'acrylique sur toile, l'une en forme de croissant de lune, l'autre en forme de peau de bête et d'une petite peinture de technique mixte sur toile

(détail de l'installation, parapluies peints à l'acrylique et au spray, peinture acrylique sur toile)

Anca Seel

Così fan tutte, 1998

(détail de l'installation, petite peinture, technique mixte: huile, morceau de verre et feuille d'or sur toile, 14 x 22 cm)



Pour dire la femme, la réponse plastique d'Anca Seel, parapluies symboliques et portrait-haïku.

Ouvrage précieux Anca Seel et Agota Kristof tournées vers «Hier»

Toutes deux installées à Neuchâtel, Anca Seel, plasticienne roumaine, et Agota Kristof, écrivain hongrois, se sont retrouvées pour conjuguer ensemble leur «Hier». A quatre mains, elles livrent une variation sur des passages choisis du roman, dans un précieux coffret noir frappé d'une dérisoire étoile rouge.

Pour Agota Kristof et Anca Seel, le rouge et le noir se marient désormais dans un très beau coffret pour bibliophiles. Né d'une relecture de «Hier», un roman de la première mis en images par la seconde, cet ouvrage ne saura passer inaperçu alors que le tournage du film adapté par Silvio Soldini est à quelques jours de son début.

«Agota et moi, nous devons nous rencontrer», raconte Anca Seel que l'on connaît bien plus pour ses grands tableaux mêlant ors byzantins et images d'empires révolus juxtaposées à des signes archétypiques des années communistes de son pays. *Nous habitons la même rue, avant de déménager l'une et l'autre dans d'autres quartiers de la ville.* Citant Cioran pour dire que Agota est un per-

sonnage tragique, Anca Seel qui ne manque jamais, lors de ses retours dans la maison familiale à Bucarest, de fouiller le galetas à la recherche de souvenirs, de son propre hier, a été bouleversée par ce roman, dont elle trouve la fin parfaite. En gros, il met en scène un jeune meurtrier de sa propre mère et de l'amant de celle-ci, qui, profitant des événements, quitte son pays en se déclarant orphelin de guerre. Il travaille en usine. Un jour, il rencontre Line, l'amour de toujours et toujours aussi impossible qu'hier. Pour des raisons cruelles qui paraissent évidentes, pour d'autres un peu plus mystérieuses.

«J'ai traité ce livre selon ma propre sensibilité, l'amour me paraissant bien plus fort que la question de l'exil», relève Anca Seel en montrant les pages imprimées en noir sur blanc, à gauche l'écriture manuscrite d'Agota qui a traduit ses propres textes en hongrois pour l'occasion, à droite le texte français, entre les deux une gravure noire baignée de rouge sang et de rouge passion. Comme le long fleuve d'une vie pas tranquille. *Je marchais (...). Cette route ne menait nulle part (...). Il n'y avait de route que droit de-*



Anca Seel, une artiste qui marie dans «Hier» ses deux amours: la littérature et l'art pictural. photo S. Graf

vant»: les phrases d'Agota Kristof ne permettent aucune alternative. Les images, elles, se succèdent et déchirent petit à petit les pages d'un passeport, d'une identité. «C'est en

devenant rien du tout qu'on peut devenir écrivain», lit-on dans «Hier».

Limité à trente exemplaires, comportant sept gravures en technique mixte avec inclusions de métal, ce coffret à quatre mains résulte d'une «collaboration aussi simple qu'excellente avec Agota. Je fais déjà le projet d'un deuxième livre sur le texte de ce roman», poursuit Anca Seel en rêvant de le porter à son tour à l'écran. Comment? «Je dois apprendre à filmer, pour laisser venir l'histoire et que la poésie envahisse tout. Je voudrais que la fille d'Agota en soit l'héroïne... Songeons à «Andrei Roublev», un chef-d'œuvre de Tarkovski, monté sans budget». Pourquoi pas? Sans audace, on n'entreprend rien. Et entreprenante, Anca Seel l'est, qui expose ses œuvres à Venise ou à Paris, «Hier» compris, mais encore un autre livre enrichi de gravures originales, celui réalisé avec l'écrivain marocain Abdelkebir Khatibi, présenté en grande cérémonie à l'Institut du monde arabe.

Sonia Graf

Môtiers: Anca Seel revisite Casanova



Votre portrait
par Philippe Vi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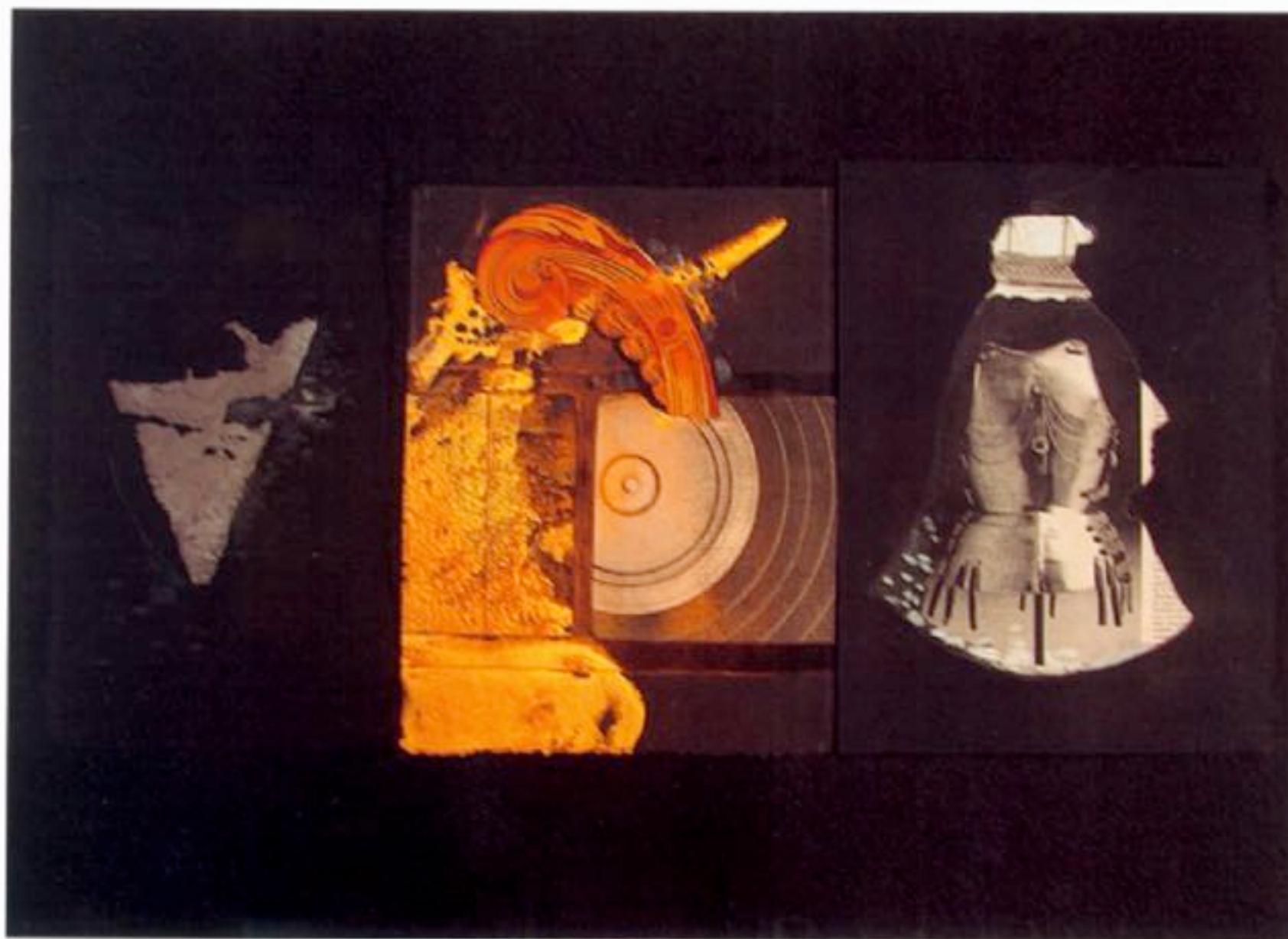


Pierre Casè à Milan
Retour
de la mémoire



Poésie mécanique
de Charles Morgan





Anca Seel au Château de Môtiers Casanova et les gammes du plaisir

La Galerie du Château de Môtiers, dans le Val-de-Travers, va fermer ses portes. Ainsi l'ont voulu les nouveaux propriétaires du château, malgré l'extraordinaire travail que, depuis des lustres, Marie Delachaux et son mari Pierre-André, le fameux pape de l'absinthe, ont accompli pour révéler les artistes suisses et étrangers, en des expositions vivantes où l'on partageait le plaisir de la découverte avec celui de la convivialité. C'est l'artiste roumaine Anca Seel, établie à Neuchâtel, qui clôt la longue liste des créateurs invités - en attendant, cet été, la grande exposition suisse de sculptures Môtiers 2003, sous-titrée «C'est la faute à Rousseau» qui réunira, en plein air, une soixantaine de plasticiens, dans le village historique, la forêt, ses clairières, ses rochers, ses cascades.

Anca Seel présente une série magistrale de ses toutes dernières créations, réunies sous le signe de Casanova: «Les gammes du plaisir». Cet ensem-

ble de tableaux, peintures et gravures, forment un corpus d'une grande intensité où l'on sent que l'artiste s'est donnée à fond, dans l'expression d'un monde imaginaire nourri de multiples aspirations, d'une culture littéraire et artistique étendue, et, ce qui englobe tout, ici: l'amour. Amour de la vie qu'elle a rencontré dans chaque page des fascinants *Mémoires* de Jean-Jacques Casanova de Seingalt, contenant ses voyages et ses aventures galantes et politiques en Italie, en France, en Espagne, en Angleterre, en Russie, en Pologne et en Allemagne - écrits en français à la fin de la vie du grand aventurier, jusqu'en 1797, un an avant qu'il ne meure, et dont le manuscrit fut acheté en 1820 par l'éditeur de Leipzig Brockhaus. La parution intégrale date de 1960.

Anca Seel a pris Casanova pour héros en tant que personnage emblématique d'une époque, d'une ville, d'un style de vie. N'oublions pas qu'elle est née en Roumanie dans une



famille aristocratique, qu'elle a du sang russe et grec, que la confession orthodoxe a marqué ses premiers pas, que son art, qu'il soit de Russie ou de Byzance, l'a émue, les icônes et les ors imprégnant profondément sa manière de regarder, de sentir. Elle a suivi à Bucarest une formation académique complète en dessin, en peinture et en gravure, avant de pouvoir quitter son pays pour venir vivre en Suisse en compagnie de son mari le philosophe d'origine allemande Gerhardt Seel.

Passionnée par la littérature ancienne et moderne, Anca Seel est une cosmopolite s'ex-

primant avec aisance en différentes langues; comme Casanova elle voyage beaucoup dans toute l'Europe - y compris, aujourd'hui, la Roumanie, le président Iliescu lui-même appréciant son art. (Mozart, dont on sait que Casanova a participé au livret de *Don Giovanni*, disait que «si l'on ne voyage pas, on n'est vraiment qu'un pauvre individu»)! Anca Seel a travaillé, en particulier, dans un atelier de gravure à Paris. Elle a même vécu une année aux États-Unis, pays dont elle ramène une vision amère - lorsqu'elle en parle, on ne peut s'empêcher de penser à *l'Histoire de ma vie* de Casanova, contant ses ennuis avec les autorités, celles du Turin, par exemple!

La nostalgie du XVIII^e siècle habite la réflexion picturale d'Anca Seel - mais d'une manière nullement passéiste. Disons d'abord qu'il s'agit évidemment d'un XVIII^e de rêve, dominé, comme à Venise, par le tourbillon des fêtes, des masques, des intrigues galantes, des

costumes de soie, des tissus nobles, des couleurs vives - toute cette sensualité qui habite ici avec véhémence un art où le geste a une place primordiale. Je déteste aujourd'hui les aspects touristiques du Carnaval de Venise, cette espèce de kitsch de carte postale qui s'est emparé de toute l'image d'une ville dont la décadence vient du départ, de la défection des Vénitiens eux-mêmes, laissant la place aux troupes d'imbéciles heureux débarquant de l'aérodrome de Mestre. Ce qu'accompagne une imagerie où l'on voit toujours les mêmes masques fades, les mêmes éventails fades, dignes de la pacotille du Vatican (encore que le kitsch religieux est bien plus amusant)... Rien de tel dans l'art d'Anca Seel, qui nous fait saisir un monde fort, chaud, cruel, insolent, oui, insolent par cet assemblage de couleurs qui ne semblent rien avoir à faire les unes avec les autres, mais se rencontrent comme se mélangaient nobles et gens du peuple masqués de Venise, en un affrontement salutaire ayant pour principal dessein l'oubli du monde quotidien au profit du plaisir. D'où l'extraordinaire ivresse alchimique de cette suite de tableaux, en particulier dans les deux *Pas de l'Ange*, dans *Venise. Lumière sur une maison* (où les couleurs nous rappellent, mutatis mutandis, l'exposition *Fauve qui peut* d'Ivan Moscatelli), dans *ELLE* où apparaît le fantôme de la grande odalisque d'Ingres, dans cette *Bacchanale*, ces *Fêtes occultes*, dont l'une, de très grand format, nous fait littéralement perdre le sens.

L'évocation de Casanova, dans un tel travail, n'a rien d'intellectuel. Elle est avant tout affaire de geste: gestuelle qu'Anca Seel a travaillée en s'imprégnant des plus grands peintres vénitiens, de Carpaccio à Canaletto en passant par Veronese, Il Tiziano et, surtout, Il Tintoretto. Le geste d'Anca Seel fut, au début de l'aventure, ample et mesuré, il jouait sur les symétries, avec quelques références figuratives. Et puis il s'est libéré, dans les dernières



Pas de l'Ange, technique mixte, 2002



Portrait, technique mixte, 2003

compositions, selon une force qui ne se perd pas au fur et à mesure de l'élaboration du tableau, par couches, par soustractions, par lacérations. L'incorporation de différentes matières, colle, verre, métal gravé, insuffle ici une énergie qui garde la mémoire du geste. Mais, ce que je trouve personnellement émouvant, c'est que la vision profonde d'Anca Seel ne renonce à aucun instant à l'idée platonicienne de la beauté, au profit de l'expression.

P.H.

L'air féroce de Casanova

Anca Seel ne trouve pas Casanova vraiment beau, d'après les portraits qu'il nous a laissés. Comment était-il physiquement? Citons Félicien Marceau (*Casanova ou l'Anti-Don Juan*, Gallimard): « Son physique. Il faudrait bien en dire un mot. Lui-même se trouvait « non pas de la beauté mais quelque chose qui vaut mieux, un certain je ne sais quoi qui force à la bienveillance » (I, 203). « J'étais, dit-il encore, doué par la nature d'un extérieur agréable et imposant » (I, 431). « Savez-vous que vous êtes un très bel homme », lui dit Frédéric II, grand connaisseur comme on sait. Crébillon avait six pieds, dit-il, soit un mètre quatre-vingt-quatorze. Il me surpassait de trois pouces, ajoute-t-il. Cela fait pour Casanova un mètre quatre-vingt-six. Une très jolie taille. Le prince de Ligne a raison de dire qu'il est bel homme, mais ce n'est pas sans quelques réserves. « Ce serait un bel homme, écrit-il, s'il n'était pas laid; il est grand, bâti en Hercule, mais un teint africain; des yeux vifs, pleins d'esprit à la vérité, mais qui annoncent toujours la susceptibilité, l'inquiétude ou la rancune, lui donnent un peu l'air féroce ».

Du 22 mars au 27 avril 2003

Galerie du Château
Clos du Terreau 6, Môtiers
Tél/Fax 032 861 29 67
Me-su 10-20h, di 10-17h

Notons que le restaurant offre à cette occasion deux excellents menus, l'un roumain et l'autre vénitien.



Centre Dürrenmatt

Des vers mis en couleurs

Le 16 décembre 2004, en fin de journée, on notait au Centre Dürrenmatt, sur les hauts de Neuchâtel, une effervescence peu habituelle mais bien compréhensible puisqu'on célébrait en ces lieux la venue au monde d'un ouvrage très particulier: la traduction picturale par l'artiste Anka Seel-Constantin de neuf poèmes de Pier Paolo Pasolini, l'Italien mondialement reconnu pour ses films et ses interventions politiques dans les grands quotidiens, mais moins connu pour ses écrits, sa peinture et ses poèmes. Très peu savent, en effet, que Pasolini était essentiellement un poète.

De Dostoïevski à Pasolini

D'origine roumaine, Anka Seel-Constantin est artiste dans l'âme, une aptitude qui lui permet de découvrir, à travers leurs œuvres, la nature intime des écrivains. N'a-t-elle pas, bien avant ses 15 ans, et pour se mettre les idées en place, lu une bonne partie des romans de Dostoïevski ainsi que ceux de Thomas Mann! Ce n'est qu'arrivée en Suisse, après avoir quitté sa Roumanie natale où elle a suivi l'Ecole des beaux-arts de Bucarest, qu'elle a réalisé que Pier Paolo Pasolini était un poète. Une découverte ne venant jamais seule, le décryptage de ces poèmes de jeunesse a conduit Anka Seel à conclure que le communiste Pasolini, qui dans ses films tournait en dérision la religion (comme dans *La Ricotta*), croyait en Dieu. Pour Anka Seel, ce n'était pas à Dieu que s'attaquait Pasolini, mais au clergé et à ses dérives. Sous la carapace de cinéaste violent se serait donc caché un poète croyant.

Ainsi, l'homosexuel et communiste notoire Pasolini a, dans sa jeunesse, écrit des poèmes d'amour dans lesquels on peut lire les références à un «Seigneur invisible, mais sa lumière ne cesse de briller immense» qui ne laissent pas de doutes sur les sentiments du poète.

Le rouge et le noir

Anka Seel, qui n'en est pas à sa première expérience dans le domaine de l'édition d'ouvrages pour bibliophiles, a cédé à l'amicale requête du prince Dimitrie Sturdza de donner une vie picturale aux poèmes de Pasolini. Cette impulsion fut le point de départ de la mise en musique visuelle de neuf poèmes et le résultat est tout à fait surprenant. Dans la majorité des planches, le rouge s'impose sur le noir du support tel un écho à la violence des films de Pasolini. Mais cette réminiscence n'est pas seule en jeu, elle côtoie la croix, entière ou

suggérée, une référence à la foi cachée de Pasolini, une foi qui ne pouvait que profondément toucher l'artiste roumaine, qui s'est également fortement inspirée du patrimoine peint. Ainsi, c'est un cupidon du Caravaggio qui a servi de trame à l'illustration du vers «Tuournes vers moi ta noble tête...», vers tiré du poème *David*. Car, disons-le sans ambages, le coffret qui nous donne accès aux visions picturales poétiques d'Anka Seel ne livre, en face de l'estampe, qu'un seul des vers du poème. A moins d'être féru pasolinien, la relation n'est pas toujours immédiate. Elle risque cependant fort de titiller l'esprit de celui qui contemple l'œuvre graphique et de le conduire presque certainement à vouloir lire le poème in extenso.

Outre le rouge et le noir – mais non, je ne parle pas de Stendhal – l'or et l'argent sont fréquemment employés, donnant aux estampes d'Anka Seel un je-ne-sais-quoi d'icônes.

Et ensuite ?

Les Editions Dimitrie Sturdza, dont l'ouvrage d'Anka Seel est la première réalisation concrète, ont bien évidemment des projets... qui impliquent la participation d'Anka Seel. L'artiste a déjà été sollicitée pour illustrer Eugène Ionesco. Vaste programme!

Daniel A. Kissling

MINI
ANNONCE
 DANS PLUS DE 88'000 MÉNAGES
MAXI
IMPACT

Courrier
 NEUCHÂTELOIS

Anca Seel-Constantin

“An object-book cannot be hung against a wall like a painting or an engraving. That is why there is something mysterious about them”





- 1981-1985: "Nicolae Grigorescu" Fine Arts Institute, Bucharest
- 1990-1991: Studies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Neuchâtel University, Switzerland

Personal Exhibitions (a selection)

- 1991 - Kunstverein Erlangen, Germany - painting
- 1993 - Marie-Louise Muller Gallery, Neuchâtel, Switzerland - painting
- 1994 - The Romanian Cultural Institute, Paris, France - painting
- 1995 - Pierre von Allmen Museum, Thielle-Wavre, Neuchâtel, Switzerland - painting
- 1996 - La Galerie des Amis des Arts, Neuchâtel, Switzerland - painting - Zouks Art Gallery, Brussels, Belgium - painting - Alexander Onassis Center, New York, USA - painting and object-books
- 1997 - The Romanian Cultural Institute, Venice, Italy - painting and engraving - "Le Grand Cachot-de-Vent" Foundation, Switzerland - painting and engraving
- 1998 - Parti-Pris Gallery, Lausanne, Switzerland - painting and engraving
- 2001 - The Worldwide Congress for Esthetics, Tokyo, Japan - object-books
- 2002 - The Romanian Cultural Institute, New York, USA - painting, engraving and object-books - Marie-Louise Muller Gallery, Neuchâtel, Switzerland - painting and engraving
- 2003 - The Romanian Cultural Institute, Paris, France - painting, engraving, object-books - Château de Môtiers Foundation, Switzerland - painting and engraving
- 2006 - The National Museum of Romanian Literature, Bucharest - object-books and engraving
- 2007 - "Eieusis" Gallery, Iasi - painting, engraving, object-books

- 2008 - "Dialogue" Gallery, Bucharest - painting, engraving, object-books

- 2009 - Jean-Jacques Rousseau Museum, Môtiers, Switzerland - painting and object-books

- 2011 - Accademia di Romania, Roma, Italy - painting, engraving, object-books

Object-Books in Public Collections:(a selection)

- 1995 - Switzerland's National Library in Berna - "Les larmes de bambou" (in translation "The Bamboo Tears" - written by Bernard 1998 - Switzerland's National Library in Berna - "Les larmes de bambou" (in translation "The Bamboo Tears" - written by Bernard Chambaz - The French National Library, Paris, - "Les larmes de bambou" - The Public and Academic Library, Neuchâtel, Switzerland - "Hier" (in translation "Yesterday") - written by Agota Kristof
- 1999 - Switzerland's National Library, Berna - "Hier"
- 2001 - The Institute of the Arabian World, Paris, France, "Le don de l'Aimance" (in translation "The Gift of Aimance") - written by Abdelkebir Khatibi
- 2004 - Switzerland's National Library, Berna, "L'Ange impur" (in translation "The Impure Angel" - written by Pier Paolo Pasolini - The Public and Academic Library, Neuchâtel, "Le don de l'Aimance" - The Public and Academic Library, Neuchâtel, "L'Ange impur"
- 2005 - Bogliasco Foundation, Genna, Italy, "L'Ange impur"
- 2005 - Henry et Mary Clews Foundation, Château de la Napoule, "L'Ange impur"
- 2011 - The Public and Academic Library, Neuchâtel, "Le Portrait" (in translation "The Portrait") - written written by Jean-Jacques Rousseau
- 2011 - The Public and Academic Library, Neuchâtel, "L'île" (in translation "The Island") - written by Jean-Jacques Rousseau



What does an object-book mean and what makes it stand out from the rest of the books?

An object-book addresses a kind of public that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reader (the word "common" is nowadays frequently used, particularly in France). What makes it stand out? I think that almost any passionate reader can become a bibliophile if they have the chance to come to know the somewhat unordinary world of the artists who want to transform texts into objects. Not to mention if they start thinking about collecting such objects, which are somewhat hidden. They are kept in a library; they are locked, stored, and saved for special, rare, and privileged moments when they are admir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only to be hidden again and brought back to the world after a while. An object-book cannot be hung against a wall like a painting or an engraving. That is why there is something mysterious about them...

What does one need to do to make such a book?

I think first of all the artist needs to be a passionate reader... One needs to have spent most of their lives reading... one must have authors they worship and the images that they illustrate must be reminiscent of the numerous readings they did throughout time... Also important, the artist must be fond of libraries and see them as permanent resources, which Borges compared to Heaven... If Paradise would be a library, while inside one we would be just as safe from any evil, safe from the outside world

and away from it. (Borges said that he imagined Heaven as a library).

Why did you choose this artistic expression?

I chose several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I started with painting and continued with graphics and tapestry. Later, I tried engraving object-books or books for bibliophiles, as they are called.

I made my first object-book in 1991 and it had no text. The second book had no text either. Several other object-books followed: Pasolini, Kristof, Chambaz, Khatibi, Flamand, Kavafis and now, the last two books with texts written by Jean-Jacques Rousseau, the great author from Geneva...

In conclusion, to answer your question, this universe of the bibliophile book which is extremely special, starting with the engravings that are especially designed for books, the paper choice, the font of the texts and ending with the bibliophile public – they have always seemed very appealing to me...

However, I did not stick to books only: last year, I had an exhibition of paintings and engravings in Rome and two years ago I exhibited painting and engraving works (including object-books) at the Jean-Jacques Rousseau Museum, in Môtiers, Switzerland. 1996 was when I had my first exhibition fully relying on texts (Sappho's poems) at the Alexander Onassis Center in New York.



Are object-books books for bibliophiles?

Object-books are books for bibliophiles, i.e. for those who love rare, beautiful, and precious books. I even heard the term "bibliomania" in reference to book collectors. I think many books in the Middle Ages and the Renaissance were genuine works of art, but when the French Revolution came numerous libraries were destroyed by the... revolutionaries. Fortunately, in other countries libraries were saved. ... Starting with the 19th century, the object-book was slightly downgraded because people were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the number of books. The object-books as we know them first appeared in the 20th century. The first artists were Picasso, Matisse, Miro, Cocteau and many of them found an inspiration in literature... That was a beautiful age...

How does the public perceive this form of art in Switzerland?

I think the most appropriate answer to your question is a book that discusses the artistic books that were created in Switzerland from 1883 to 2010. The book is called "The Free Book" (in original "Le livre libre"), which was published by the Buchet-Chastel Publishing House, under The "Les cahiers dessinés" Collection, Paris. Among other things, this book also talks about me... I am modest, aren't I?

In Switzerland, this type of books was much appreciated and privileged... Many publishing houses took great interest in the books for bibliophiles. That is why many foreign artists visited the

French-speaking and the German-speaking Switzerland. It was because of the enthusiastic editors and book collectors. That was when artists such as Picasso, Matisse, Picabia, Dufy, Henry Moore, Victor Brauner, Germaine Richier, and many others came to Switzerland.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an object-book and its text?

I have often thought that the object-books that I make are actually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s. They are not just a mere illustration. Perhaps a perfect text doesn't even need to be illustrated. However, books had illustrations since forever and they accompanied the text in such a way that they became very natural. I think the connection lies in the impression that the artist is getting when reading the written work.

Please tell us a bit about your books.

My first books, those that didn't have any texts, were unique. I only made one of each, without any copies. Then I continued with engraving books – they had 8 or 9 engravings and I only made 30 copies for each book. At a later point, I realized that an object-book, especially if it relies on a poem, cannot come in copies just like you cannot recite a poem in the same way two times in a row. That was when I decided to illustrate each text in a way that cannot be duplicated. So, in the end I came back to the concept of a unique book: although the text is reiterated, the illustration changes each and every time. That's what I did with Pier Paolo Pasolini's texts. The book called "The Impure Angel" (in original, "L'Angelo impuro") was presented at the Friedrich Dürrenmatt Centre in Switzerland and was purchased by Switzerland's National Library.

There is another book I have been working on for years and still haven't finished. It has the poems of Constantinos Kavafis. They are so beautiful that I cannot select only 10 or 12 of them! I also had a hard time choosing among their translations in French, English, Romanian, and German... The book will be entitled "Athénium", the name of the café where the poet used to go every day and where he wrote many of his poems.



ROMÂNIA VIEW OVER THE TOP

Does the life of an object-book flutter between ham acting and drama?

Do you know where the concept of ham acting originates from? (In French, the term is "cabotin" and it comes from a proper noun) It was the name of a comedy actor that lived in France in the 17th century. His name ended up describing a person with exaggerated and false gestures. As far as I know, this concept is particularly used in the theatre and the cinema, but it can equally describe many politicians.

Yet, the life of an object-book cannot be reiterated. Each book has its own destiny. Its drama can be left on the shelf in some library. Or the library may actually burn to ashes! It's not like it never happened before. I once received two books with Voltaire's plays, which were published when he was still alive. They included a few exquisite engravings and had an amazing paper. The four remaining volumes had been left in a flooded room...

What is the destiny of a book for bibliophiles and how many people have access to it?

This is indeed a problem... accessing the books I mean. In times like these, in the era of the Internet, one might think that

books will no longer be important. Some say they will even disappear. I don't think so. Certainly, the price is not at all small, but just like philosopher Derrida said "Si tu veux la Rolls, tu l'auras!" (in translation "If you want a Rolls Royce, you'll have it!") Nothing can stop us from becoming passionate and studying. Nothing prevents us from admiring art or from searching and learning by visiting museums... there are so many things waiting for us to learn them. Libraries come with free access and that's where you'll find the object-books, which one is allowed to see even if one cannot buy them. That is where you will find people who will support anyone interested in becoming a bibliophile. There is an example that comes to my mind: The Kostakis Collection in Athens. Mister Kostakis was a chauffeur for the Greek Embassy in Moscow. He sensed that something important was happening in art at that time and started buying works from the Russian artists, as many as possible and not even very expensively. That is how he brought to Greece the most interesting collection of Russian avant-garde art since 1910 to 1930!

